

제 23회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발표 개요

“다이쇼기 일본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그 한계 - 히라츠카 라이초와 <신부인협회>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은경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히라츠카 라이초우는 여성을 위한 잡지[청탐] 창간, 동반자살 기도, 남편과의 사실혼, 모성보호 등으로 유명. 논쟁이나 이론을 기반으로 창설한 <신부인협회>운동에 주목. 3년 동안 신부인협회 활동 후 소비조합 운동으로 나아감.

<모성보호논쟁>

*요사노아키코

임신분만때는 국가를 향해서 특수한 보호를 요청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히라츠카 라이초우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야마가와 키쿠에

진정한 해결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변혁이 있어야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야마다 와카

여성본인 이야기만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신부인협회>

준비기: 모성보호논쟁이후, 1919년 의회청원운동. 치안경찰법 제 5조 개정 운동, 여성의 정치 활동 제한하는 총 6글자를 지우는 것, + 화류병 남자의 결혼을 제한하는 청원.

제1기: 1920.1-1921.6

의회해산의로 제대로 청원 제출도 못하다가 정당정치인과 연합해서 법률안을 제출. 기관지 [여성동맹]창간. 여자교원들과 관계를 맺어감.

치안경찰법, 화류병 남자, 참정권 개정안. 등이 주요 이슈

제2기: 1921.7-1922.3

치경법 수정안 통과.

제3기: 1922.4-12

협회의 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발표 개요>

다이쇼기에 여성들이 조직화하여 정치참여 요구하기 시작한다. 부선운동의 원점이라는 측면과 운동하는 여성들의 여러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지점. 여성 운동의 시작점이며 다양한 노선들이 아직 명확하게 분화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다양한 흐름이 한자리에 있었던 미묘한 지점. 주인공들만이 아닌 그 외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본다.

신부인협회의 전사=모성보호논쟁(1918-1919)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관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모성보호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요사노는 라이초우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긍정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연구자는 아마 신부인협회의 운동을 통해 라이초가 의회와 국가와 마주치면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은 아닐까 예상.

국가개조 실현을 위한 개인의 개조가 부족하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개조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부인협회의 제 활동들이 필요하다.

협회의 활동은 여권주의와 모권주의의 동반실현. 의회청원은 남성들의 움직임까지 전제하고 포괄하는 것. 협회의 설립과정은 라이초우의 의도와 달랐다. 잡지내서 그것을 통해 지지들을 규합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사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과 조직 운영.

화류병 남자 결혼 제한을 위한 청원은 우생학적 의도나 남성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아니었다. 결혼금지를 화류병에만 한정했다. 더 큰 병들이 아니라 화류병에 제한하고, 병자가 아니라 남자에 한정하고, 결혼이라는 법적인 행위에 주목한 것이 비판의 지점.

->이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근거한 것임. 다른 병들은 다 인식이 되고 격리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류병은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자인 것은 여자환자 별로 없고 검사도 가능하지 않은 것. 셋째는 연애결혼론자이지만 현실 존중해서 결혼 문제에 주목.

(이하 발제문 참조)

<질의응답>

임채성.

-화류병 관리, 위생관리의 측면에서, 업계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관리했지만, 남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거기 드나드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대책으로서 비슷한 법안을 만들기도 해다. 화류병 퇴치가 주관심사.

-신부인회에서 '신'의 의미가 뭐냐, 관제 부인회 운동을 놓고 '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신여성에서 온 것이 신부인인 듯한데 양자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조관자

-한계가 아닌 지점이 무엇이기에 한계라는 말을 쓰느냐는 의의제기 나올 수 있다. '한계'라는 용어에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 한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오염'된 시각 아닌가.

-브르조아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갈등은 여성운동에서 늘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개인들의 갈등에 주목하는 연구도 새롭게 나왔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브르조아운동과 사회운동의 갈등으로 뒤집어서 되돌아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무엇인가는 좀 더 모색이 필요하다.

답변->다이쇼기 여성운동의 재고찰에 더 합당한 내용인데, 급하게 제목을 정하느라 '한계'가 들어갔다. 미흡한 제목이라 바꾸겠다.

한영혜

협회를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는데, 형식적인 틀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라는 구조가 무엇인지 안보인다. 논문이 운동의 내용에만 의거하고 있다. 3기 구분도 본인의 연구 내용을 잘 구분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인위적이고 설득력 없다. 흐름을 보여주려는 본래 의도 부각되려면 조직 내의 관계와 그것의 운영 방식 등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운동의 내용을 넘어서 운동의 조직화의 측면 좀 더 주목해 달라.

답변->시기구분은 조직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회운동으로 휘둘린 측면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요령이 없었다.

김효진

-공창의 여성에 대한 권익보호는 왜 아무데서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 모성에 대한 이야기만 있느냐, 역시 우생학적 관심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인맥적인 차원 말고, 2차 여성운동의 물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기독교계통에서는 꾸준히 폐창운동하지만 부르주아 계열의 운동에서는 여공까지가 한계선이었던 듯. 라이초우 등은 매춘 관련 이슈에는 개입 안한다.

조아라

-화류병 운동이 유아무야된 것이 페니실린 개발과 시판에 따른 것은 아닌지

-신부인협회가 당시의 여성운동의 지형에서 어떤 위치인지 지점 규명

-구미 운동과의 관계 규명 요청

-치경법이 노동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왜 후사에는 치경권문제에 집중했는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답변->치료제가 있으니까 격리시켜서 완치시켜서 결혼시키자. 치료제의 개발은 법안에 근거제공한 듯.

노동운동하면 치경법에 관심 갖게 된다. 치경법은 국보법, 집시법의 성격이다. 노사분규와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게 된다. 운동을 탄압하는 기본법이니까.